

# 김산업, 목포 먹거리 자리매김...올 수출 전국 최대

### 7000만 달러 사상 최고액 수출 전체 수산물 수출액 94% 차지 진흥구역 지정 등 특화 육성 매진

‘1호 김산업 전문기관’에 지정된 목포수산물지원센터가 햇김 계절을 맞아 김산업 특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김 수출 예상액은 7000만달러(921억2000만원)로, 지난해 수출액(5500만달러)을 넘어 사상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른김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차단체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목포시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 누계 목포시의 전체 수출액은 9100만달러이다.

이 가운데 수산물 수출액은 7200만달러로, 김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94%에 달한다. 전체 수출액에 대해서는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특화단지 육성’을 내걸고 김산업 육성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



목포시가 올해 김 수출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김산업 특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 대양산단의 한 가공공장에서 마른김을 생산하는 모습. <목포시 제공>

부 1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올해 ‘12회 김의 날’ 행사에서는 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목포수산물지원센터는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인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 지속해서 교류를 이어가며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덴 해조류 교류협력 간담회를 열고 북유럽 해조류 대규모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장(디테 린더 바이씨)과 현지 해양수산 새싹 기업 대표 등이 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두 센터 간 해조류 연구 협업사례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달 일본 수산청과 대사관, 영사관, 일본 전국김가공협회, 전국김도매협회 등 5개 단체는 목포 대양산단의 김 가공공장을 찾아 시설을 살폈다.

목포시의 김 수출 대부분은 대양산단에 집중되

고 있다.

목포시는 이곳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김산업을 고도화하고 김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대양산단에는 반경 500m 안에 15개의 김 가공업체가 들어서 있다. 오는 2025년에는 수산물 수출단지를 준공하고, 2026년에는 마른김 거래소 개장을 앞두고 있다.

수산물 수출단지 및 마른김 거래소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조성되는 수산물 수출단지에는 김을 비롯한 수산물 수출 기업을 위한 36개실이 마련된다.

마른김 거래소는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 안에 1300㎡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마른김 거래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구매자를 위한 거래 유통망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적 조미김 소비 증가 추세에 따라 해외 현지 김 가공공장과 마른 김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의 김 산업은 많은 일 자리는 물론 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적 먹거리가 되는 김 산업의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차질 없는 지원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무안군 환경면 용정리에 여성 농업인 작업장 개소



무안군이 환경면 용정리에 여성 농업인 전용 작업장을 이달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꾸러미 작업장’은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 안에 들어섰다.

이 작업장은 사업비 2억80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34.40㎡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됐다.

꾸러미 작업장 건립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의 하나로, 여성 농민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연결해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작업장은 언니네밭무안공동체(사진)가 운영한다. 이 단체는 농가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이다.

1만6500㎡ 규모 농사를 지으며 150개 품목의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다양한 제철 꾸러미 농산물을 일주일에 한 번 포장해 3000여 명의 도시 소비자(회원)에게 택배 배송하고 있다.

이번 작업장 준공으로 작업 공간이 마련돼 업무 효율이 늘 것으로 단체는 기대했다.

서명호 무안군 농정과장은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언니네밭 무안공동체의 취지에 맞게 제철 농산물을 활용하여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진도군 12개 섬마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진도군이 12개 섬마을에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과 함께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이다.

진도군은 섬 지역 중 연결이 안 된 낙도 섬마을 특성상 의료접근성 저하와 고령화로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보건·공공기관이 없는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조도면 소마도·독기도 등 12개 섬마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각 마을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도 함께 시행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중이용 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마을 이장과 생활관리지원사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응급상황에 잘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조도면 관매도, 가사도, 진복도 등에 지난 2012년부터 응급의료전용 헬기장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폐교 위기’ 신안 홍도분교, 내년 학생 10명 들어온다

### 매달 320만원 상당 일자리 등 제공 과격 약속에 전국서 문의 쇄도 신안군 설명회 4세대 10명 선발

폐교위기에 놓였던 신안군 홍도분교에 내년엔 전학생과 신입생 등 10명이 다닐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은 현장방문과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흑산도 홍도분교에 다닐 학생으로 4세대 10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와 경남,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로, 전학생 6명과 신입생 4명이다.

홍도분교는 1949년 6월12일 공립 초등학교로 개교했다. 신안군에는 홍도분교를 포함해 37개의 학교가 있다. 섬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1970년 120개였던 학교수는 3분의1 수준으로 줄었으며, 대부분 폐교위기에 놓여있다.

신안군은 섬마을을 지켜온 홍도분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처하자 주민들과 함께 ‘작은 섬 학교’ 살리기 대책을 발표하는 등 폐교위기를 극복하고자 안간힘을 썼다.

홍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한 학생 부모에게는 숙소를 제공하고, 매월 320만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아동 1인당 연간 4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



지난 4일 신안 홍도 주민과 간담회를 가진 5가정이 홍도분교 학교시설을 견학한 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신안군 제공>

지급(2024년부터 80만원)을 약속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지에서 180여 건의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2차례의 서면심사를 거쳐 5세대가 홍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신안군은 지난 4-5일 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갖고, 최종적으로 4세대 1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신안군은 친구들이 없어 아쉽 수 없이 목포로

전학 가야만 했던 학생들이 역으로 돌아오면 홍도분교 교정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대부분 학교가 학생 수 60인 이하의 작은 학교다”면서 “앞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 학교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암군 1호 치매 보호센터 영암읍 남풍리에 들어선다

영암군 1호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가 영암읍 남풍리에 들어선다.

영암군은 최근 4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위원장 노인숙 세한대 교수) 회의를 열고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1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영암군 1호 군립 치매전담형 노인주간보호센터’ 수탁 운영기관으로 가치나눔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했다.

1호 치매전담형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영암읍 남풍리의 L.H입대주택 복지소통관 2층에 들어선다.

우승호 영암군수는 “첫 치매전담형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주민의 관심이 많다”며 “이용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 속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는 ‘안심 돌봄 관리’ 전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에는 삼호·신북·도포·서호·학산면에 6곳의 주간보호시설이, 영암·삼호·덕진·신북·시중·서호면에 12곳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쿠폰 바로 바로 확인까지!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다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